

##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관한 국가별 비교 :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이 은 아\*

### 초 록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대한 성별, 연령, 성적, 독립·자립 의식, 성역할 태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의 기제인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을 통해 동양의 상호의존적 자아 및 서양의 독립적 자아를 강조하는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에 조사된 '청소년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이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은 부정적 자아개념보다 긍정적 자아개념이 더 높았으며,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이 낮았다. 전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방식을 취할수록, 강압적 양육방식을 취하지 않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각국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에는 다른 독립변수들보다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미치는 영향력이 컸으며,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아버지의 양육방식보다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다.

주제어 :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및 강압적 양육방식, 사회화, 청소년의 자아개념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 I. 서 론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는 자아실현과 사회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다. 청소년의 정체성 정립은 자아개념의 발달과 관련된다. 자아개념은 나이에 따라 위계적인데, 어린이보다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더 다면적이고 위계적이다(송인섭, 1998). 자아개념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다(Mead, 1934).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생애과정에서 발달되지만 가족 중에서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Gecas, 1982; Rosenberg, 1989; Hewitt, 2000). 부모가 자녀를 사회화하는 기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자녀 양육방식을 통해서 나타난다(Parsons, 1955; 정기선·박수미, 2007). 부모는 아들과 딸에 대해 생물학적 성별 및 여성을 사적 영역에 한정하고 남성을 공적 영역에 한정하는 사회적 성별인 젠더에 따라 차별적으로 성역할 사회화를 한다(윤진, 1981). 그리고 부모의 직업계층 및 국가별로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은 차이가 있다(윤인진 외, 2007).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달된다. 각국의 문화에 따라 강조하는 자아개념이 다른데, 한국과 일본 등의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양의 집합주의 문화권에서는 상호의존적 자아를 추구하며 개인의 개성 표출보다는 집단의 조화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의 서양은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독립적인 자아를 추구하고 서양의 독립적 자아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Hofstede, 1991; Nisbett, 2003; 최상진·김기범, 1999).

사회화의 기제인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 독일, 스웨덴 및 집합주의 문화권인 한국과 일본에서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적 요인인 성별, 연령, 성적과 사회문화적 영향이 반영된 독립·자립 의식과 성역할 태도 및 가족배경인 부모의 학력이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다.

## II. 선행연구

### 1.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

자아(self)는 사회적 경험과 사회적 활동 과정에서 타자와의 상호적 관계의 결과로써 발달된다(Mead, 1934). 자아는 행동의 주체가 되는 “I”와 자신이 행하는 행동의 대상이 되는 “Me”의 상호간에서 나오는 역동적인 반영의 과정으로써 언급된다. 반면에 자아개념(self-concept)은 개인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존재인 자신에 관해 갖는 개념으로 이러한 반영적 활동의 결과이다. 자아개념은 자기 평가의 원천이며,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일관성에 대한 동기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자아개념의 내용과 조직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내용과 사회 조직이 반영된다(Gecas, 1982). 또한 자아개념은 대상이 되는 자아에 대해 갖는 개인의 사고와 감정의 전체를 언급하는 것이다(Rosenberg, 1989). 자아개념에는 자아 존중감, 정체성 등이 포함되는데 자아 존중감은 중요한 타자와의 사회적 비교를 통해 발달되며, 긍정적 자기상을 유지하려는 자기 효능감과 연관되는 자아의 감정적 부분이다. 정체성은 가족, 학교, 사회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자와 관련된 개인의 위치를 언급하며, 타자와의 유사점보다는 개인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차이점에 기반을 둔다(Hewitt, 2000). 자아개념과 관련하여 긍정적 자아개념은 긍정적 자아평가, 자아 존중감, 자아 인정감, 자아 수용과 같은 개념이며 부정적 자아개념은 부정적 자아평가, 자아멸시, 열등감, 개인적 무가치, 자아거부와 같은 개념이다. 자신에 대한 평가된 신념 및 느낌인 자아개념은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과 같이 긍정과 부정이 일직선상에서 나타난다. 높은 자아인정,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에 비하여 자신에게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자아 존중감, 자아 수용감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송인섭, 1998).

Mead(1934)에 따르면, 자아의 발달에는 가족과 같은 중요한 타자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I”는 사회적 “me”를 인식하고, “I”는 타자의 태도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이다. 반면에 “me”는 자신이 가정하는 타자들의 태도에 대한 조직화된 단일체로 타자들의 태도가 조직된 “me”를 구성한다. 자아는 놀이 단계와 게임 단계

및 일반화된 타자의 관점이라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발달되는 것이다. 놀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가까운 가족과 같은 특정한 타자를 관찰함으로써 특정한 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게임 단계에서 아동은 게임에 관련된 모든 타자들의 태도를 가져야 하며, 조직화된 게임을 통해 일반화된 타자의 관점을 배우게 된다. 게임 단계에서는 자아에 동일성을 부여하고 자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화된 타자의 관점에서 전체 공동체와 집단 활동의 맥락에서 대상에 대한 자아를 발달시킨다. 자아의 구조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의 일반적인 행동양식을 표현하거나 반영한다(Hewitt, 2000; Turner, 2003; 이동원·박옥희, 2000). Cooley(1902)의 거울자아(looking glass self) 및 Mead(1934)의 자아 획득 단계 등의 사회학적 연구에 따르면, 자아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소산이다. Mead(1934)는 자아개념의 성질 및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기원을 언급하였다.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자의 역할을 취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일반화된 타자의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내재화된 태도의 측면에서 자신을 판단하게 되었다(Rosenberg, 1989).

자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활동은 가족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화는 한 사회의 문화가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과정을 뜻하며 가족과 학교 및 사회 등의 사회화가 일어나는 구조적 조건에 주목한다. 반면에 생애과정론적 관점 및 하위문화론적 관점 등에서 청소년의 사회화는 정체성 형성의 시기로 자아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의 문화, 또래집단, 부모와 같은 성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역동성을 강조한다(김현철 외, 2006).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는 가족 및 집단과 공동체의 내용과 조직구성을 알며 놀이와 게임을 통한 역할을 수행하여 자기 준거 능력을 개발하며 사회화가 일어난다(Hewitt, 2000).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대상인 자아는 상황에 의해 정의되며, 행동을 조직하고 지시하는 방식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행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와 문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및 상호작용 행위가 사회와 문화를 재생산하고 변화시키는 일반적인 방식에 주목한다(Stryker, 1981). 따라서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사회화는 가족과 학교 및 사회와 같은 구조적 영향뿐만 아니라 하위문화 및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Parsons(1955)에 따르면, 핵가족 내에서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을 담당한다. 부

모와 자녀 관계를 통한 사회화 과정으로 자녀는 제도화된 사회체계의 규범과 문화적 가치체계를 인성으로 내면화하게 된다. 핵가족 안에서 성인 남녀의 역할분배가 일어난다. 남성은 공적 영역을 담당하며 남성의 소득으로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도구적 역할을 하고, 여성은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는 표현적 역할을 하며 사적영역에 한정된다. 이러한 성별분업을 통해 가족 안에서 남녀의 위계적 위치가 정해진다. 아들과 딸에 대한 부모의 변별적인 치우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해 지속된다.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적합한 행동은 장려하고 촉진시키며, 부적절한 행동은 억제하고 제지하여 가족 안에서 내재화된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지속시킨다(윤진, 1981). 사회적으로 부여된 남녀의 성역할 차이인 젠더의 차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식된다. 이러한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불평등한 역할이나 지위 관계의 사회적 맥락에서 일어난다(Ridgeway & Smith-Lovin, 1999). 이러한 성역할 태도는 남성 중심의 위계서열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가정에서만 아니라 주로 남성고용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성별 분업은 고착화되고 있다(이효재, 1996).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사회화 방식이 더 권위주의적이고 성고정관념적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권위주의적 자녀 양육방식에서는 아버지의 직업특성보다 학력수준이 더 중요하였다(정기선·박수미, 2007).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직업계층 및 국가별 차이를 살펴본 윤인진 외(2007)에 따르면,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청소년 자녀에 대해 강압적 양육방식보다는 민주적 양육방식을 취하였다. 한국과 일본보다는 미국, 스웨덴, 독일에서 민주적인 양육방식을 나타냈으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를 더 민주적으로 양육하였다. 국가별 어머니의 직업계층에 따라서 민주적 양육방식 및 강압적 양육방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별 아버지의 양육방식을 살펴보면, 상위정신노동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하였다.

## 2.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중에서 자아 존중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업성적과 정적 상관이 있는데, 학업성적이 높으면 자아 존중감이 높았다(Rosenberg &

Pearlin, 1978; Demo & Savin-Williams, 1983; Ross & Broh, 2000). Coleman(1988)에 따르면, 청소년 자녀의 학업과 관련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함과 신뢰에 기반을 둔 사회적 자본은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자원이 되며,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표현하면 자녀의 학업 중단율을 줄여서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가족 안의 사회적 자본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 가족배경 중에서 가족의 소득은 경제적 자본이 되며 부모의 교육수준은 인적자본이 된다. 부모의 인적자본은 가족 안에서 자녀의 학업에 관심과 지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증진되도록 하는 요소는 가족구조와 관련되며 양친이 모두 존재하고, 형제자매 수가 적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에 기대를 가질수록 자녀의 학업 중단율을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기능에 의해서 정의되며, 사회구조의 관계 속에서 행위자들에 의해 형성된다. 가족 밖의 사회적 자본은 다층적 관계이고 세대 간 폐쇄성을 가지며, 종교적 배경의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의 학부모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이면서 동시에 같은 종교단체에 다니는 어른들이어서 다층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긍정적인 관계 및 상대적으로 높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Hay & Ashman, 2003; 손진희·김안국, 2005; 김은정, 2006; 홍세희 외, 2006; 이선애, 2007). 김은정(2006)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자기평가와 부정적 자기평가로 분류하였는데, 부모기대와 의사소통 및 부모의 관리감독이라는 가족의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인 주거유형과 인적자본인 아버지 학력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기평가를 증진시켰다.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부모의 관리감독은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홍세희 외(2006)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했고,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자아개념이 더 높았다.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자아개념에는 부모의 애정과 부모의 감독 및 또래 관계가 정적인 효과를 미친 반면에 부모의 학대가 부적인 효과를 미쳤다. 또한 남학생들과는 달리 여학생들의 자아개념 변화율에는 부모 간의 불화가 부적인 효과를 끼쳤고 또래효과는 정적인 효과를 미쳐서 대인관계를 통한 높은 친밀감이 여학생들의 자아개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반면에 Hay와 Ashman(2003)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자아개

념 및 정서적 안정성에 영향을 끼쳤다. 손진희·김안국(2005)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자아개념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부모가 자녀의 학업,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 반면에 중학생들의 자아개념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끼치는 영향력이 더 컸다. 또한 이선애(2007)에 따르면, 아버지의 학력이 높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수록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경향이 있었다(Demo, 1992). 자아개념은 청소년기 이후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이종승·남덕진, 2002).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한국이나 일본은 집합주의 문화권이며 미국, 독일, 스웨덴 등은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집합주의 문화권과 개인주의 문화권에 따라 자아에 대한 강조점이 서로 다르다. 동양의 집합주의 문화권에서는 사회와 집단 및 개인 간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해 상호의존적 자아를 강조한다.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권은 개인의 자아실현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개인의 성취가 중심이 되며 개인과 사회가 거리를 두는 독립적 자아를 강조한다(Markus & Kitayama, 1991; Nisbett, 2003; 최상진·김기범, 1999; 한규석, 2002). Hofstede(1991)는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하면 개인주의 사회라고 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이 중요하면 집합주의 사회라고 하였다. 개인주의 수치로 분류한 결과에 의하면, 미국이 개인주의 수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 순서이었다. 한국, 일본 등의 집합주의 사회에서는 조화와 합의가 궁극적인 목표이며, 일보다 인간관계가 우선되고, 자유보다 평등이 더 중요하였다. 반면에 미국, 스웨덴, 독일 등과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아실현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인간관계보다 일이 우선이고, 평등보다 자유가 더 중요하였다.

한국사회를 살펴보면, 1960년대 초까지 한국의 산업구조는 전통적인 농업 사회였고, 사회적으로 가부장적 권위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다. 1960년대 이후 공업화와 도시화로 급속한 근대화가 진행되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집합주의 가치관과 개인주의 가치관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혼재하여 있으며, 가족주의 및 연고주의와 같은 관계중심의 가치관이 지속되었다(안호용·김홍주, 2000). 가족주의에서는 사회의 구성단위인 집이 가장 중요한 사회집단이며, 개인은 예속되어 있고, 상하 서열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가족주의는 가족 외의 외부사회에까지 서열의식이 확대되는

사회의 조직형태로 작용하며 공동체로부터 개인은 미분화되어 있다(최재석, 1999). 청소년 세대들도 가족주의, 연고주의라는 관계 중심의 집합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최태진, 2004; 김의철 외, 2005; 정명숙·김혜리, 2005; 정옥분 외, 2007). 미국보다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연고의식이 강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장남을 우선으로 하는 가부장적 사고를 나타냈고, 가족 중심적 이었다. 그리고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사회봉사보다 가족 구성원의 화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오만석 외, 2001).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의 청소년들이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의 청소년들과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김승권 외(2005)에 따르면, 가족관계 중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자녀관계 만족도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한 민주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부부가족, 한부모 가족 등 모든 가족 유형에서 동일하게 문화생활 혹은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만족도가 높았다. 가족관계는 자녀의 인격형성과 사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의 일방적인 주입식 양육방식보다는 민주적인 양육방식이 부모와 자녀 관계의 만족도를 높였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에서 청소년들의 주요한 양육자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인 경향이 있었다(김현철 외, 2006).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더 상호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며 건강한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총체적으로 관여하는 청소년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윤철경, 2003; 강영배, 2004; 정기섭, 2007).

### Ⅲ.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청소년정책연구원(구 청소년개발원)이 수행한 ‘청소년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이며, 분석대상은 2006년에 조사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의 1988년생에서 1990년생까지의 청소년들이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의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학생들로 한국 조사에서는 집단면접조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일본 조사에서는 동경의 고등학생들을 주민표에서 임의추출하여 방문유치법을 실시하였다. 미국 조사에서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의 자녀들에게 인터넷 조사를 하였고, 독일 조사에서는 베를린 내 김나지움 및 종합학교를 각각 1개교씩 조사하였다. 그리고 스웨덴 조사에서는 전국의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하였다(김현철 외, 2006). 가족배경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인 부모 학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은 대졸이상보다 고졸이상의 학력이 더 많았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에서 고졸이하보다 대졸이상인 경우가 더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스웨덴
성별	남	938	207	475	144	165
	여	816	244	557	101	217
	합계	1,754	451	1,032	245	382
출생년도	1988년생	13	95	102	35	168
	1989년생	784	167	468	85	160
	1990년생	958	189	462	125	55
	합계	1,755	451	1,032	245	383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985	144	601	152	201
	대졸이상	616	266	405	60	126
	합계	1,601	410	1,006	212	327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1273	177	583	166	192
	대졸이상	340	242	433	51	135
	합계	1,613	419	1,016	217	327

##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기본 변수군인 성별, 연령, 성적, 청소년의 독립·자립 의식, 성역할 태도, 가족배경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및 강압적 양육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녀로 분류하여 여학

생=1, 남학생=0으로 하였다. 연령은 출생년도로 구분하였고 1988년생=1, 1989년생=2, 1990년생=3으로 하였다. 성적은 상=5, 중상=4, 중=3, 중하=2, 하=1로 하였다.

청소년의 독립·자립 의식과 성역할 태도의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점의 리커트(Likert)식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청소년의 독립·자립 의식 문항은 1) “결혼 전까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도 좋다.”, 2) “내가 공부를 다 마칠 때까지 나의 생활비(학비 포함)는 전적으로 부모님이 책임져야 한다.”로 구성되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청소년들의 독립·자립 의식에 대한 Cronbach' $\alpha$ 를 살펴보면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590, 일본 청소년들은 .595, 미국 청소년들은 .604, 독일 청소년들은 .378이었다.

성역할 태도<sup>1)</sup>에 대한 문항은 1)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사를 돌봐야 한다.”, 2) “사회적 성공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 3) “남자는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4) “여자는 암전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 5) “여자에게는 사회적 성공보다 행복한 결혼이 더 중요하다.”, 6)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책임이 더 크다.”, 7) “남자도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 8) “여자들도 경제적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9) “사회적 성공은 여자에게도 중요하다.”, 10) “남자가 늘 주도적일 필요는 없다.”이다. 각국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 대한 Cronbach' $\alpha$ 를 살펴보면 한국 청소년들은 .843, 일본 청소년들은 .806, 미국 청소년들은 .751, 독일 청소년들은 .879이었다.

가족 배경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는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이 포함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무학, 국졸, 중졸, 고졸)=0 및 대졸이상(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졸)=1로 구분하였다.

국가별 청소년들이 응답한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sup>2)</sup>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및 강압적 양육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점으로 되어 있다.

1) 성역할 태도에서 낮은 점수는 전통적 여성역할과 전통적 남성역할에 대한 성별 분업의 고정관념이 강한 성역할 태도이고, 높은 점수는 남녀의 성역할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성역할 태도로 해석하기 위해 1번 문항에서 6번 문항은 역점수화 하였다.

2)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방식은 한국의 경우 크게 3개의 요인들이 추출되었으며 일본, 미국, 독일에서는 주로 2개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추출되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및 강압적 양육방식의 2개 요인을 구분하여 각 요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및 강압적 양육방식은 다중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위험이 없었다.

<표 2> 아버지의 양육방식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민주적 양육방식	아버지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710	-	.713	-	.851	-	.717	-
	아버지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612	-	.543	-	.825	-	.657	-
	아버지는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698	-	.725	-	.818	-	.656	-
	아버지는 나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739	-	.690	-	.867	-	.701	-
	아버지는 나와 대화를 자주하는 편이다.	.778	-	.756	-	.884	-	.685	-
	아버지는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765	-	.749	-	.893	-	.730	-
	아버지는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671	-	.715	-	.806	-	.538	-
	아버지는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662	-	.732	-	.818	-	.550	-
	아버지는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637	-	.610	-	.849	-	.632	-
	아버지는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629	-	.706	-	.839	-	.681	-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639	-	.710	-	.841	-	.763	-
	나는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518	-	.549	-	.812	-	.706	-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486	-	.459	-	.803	-	.630	-
	강압적 양육방식	아버지는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	.730	-	.779	-	.790	-
아버지는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		-	.751	-	.754	-	.808	-	.406
아버지는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	.578	-	.732	-	.735	-	.556
아버지는 내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한다.		-	.716	-	.659	-	.808	-	.847
아버지는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	.788	-	.777	-	.841	-	.814
아버지는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	.699	-	.539	-	.811	-	.651
아버지는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	.578	-	.557	-	.669	-	.759	
요인별 고유치	5.827	4.013	5.982	3.855	9.280	4.509	5.884	3.820	
요인별 설명 변량	29.135	20.063	29.912	19.275	46.398	22.543	29.418	19.101	
Cronbach' $\alpha$	.901	.819	.903	.813	.967	.894	.894	.822	

<표 3>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대한 요인분석

문 항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민주적 양육방식	어머니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702	-	.604	-	.777	-	.527	-
	어머니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627	-	.605	-	.768	-	.427	-
	어머니는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700	-	.727	-	.776	-	.585	-
	어머니는 나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733	-	.713	-	.838	-	.653	-
	어머니는 나와 대화를 자주하는 편이다.	.760	-	.705	-	.858	-	.641	-
	어머니는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737	-	.775	-	.861	-	.719	-
	어머니는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664	-	.606	-	.774	-	.365	-
	어머니는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629	-	.636	-	.759	-	.371	-
	어머니는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591	-	.623	-	.803	-	.550	-
	어머니는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준다.	.634	-	.657	-	.832	-	.668	-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672	-	.702	-	.789	-	.657	-
	나는 어머니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570	-	.540	-	.726	-	.666	-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518	-	.542	-	.759	-	.662	-
강압적	어머니는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	.770	-	.799	-	.838	-	.770
	어머니는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	-	.770	-	.757	-	.869	-	.556
	어머니는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	.564	-	.736	-	.834	-	.551
양육방식	어머니는 내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한다.	-	.729	-	.698	-	.773	-	.818
	어머니는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	.781	-	.811	-	.866	-	.770
	어머니는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	.671	-	.533	-	.767	-	.680
	어머니는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	.559	-	.564	-	.548	-	.750
요인별 고유치		5.827	3.732	5.550	3.603	8.397	4.660	4.621	3.800
요인별 설명 변량		29.137	18.660	27.750	18.016	41.984	23.300	23.103	18.999
Cronbach'α		.896	.815	.889	.765	.954	.893	.839	.840

### 3.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이다. 자아개념은 요인분석에 의해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분류되었다. 자아개념에 대한 문항은 총 11개 문항이고, 자아개념 중에서 긍정적 자아개념은 6개 문항이며, 부정적 자아개념은 5개 문항이다.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점으로 구성되었다.

<표 4> 자아개념에 대한 요인분석

문 항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긍정적 자아 개념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04	-	.622	-	.752	-	.690	-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62	-	.762	-	.805	-	.681	-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87	-	.791	-	.781	-	.691	-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773	-	.774	-	.823	-	.815	-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772	-	.673	-	.703	-	.661	-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697	-	.606	-	.707	-	.632	-
부정적 자아 개념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760	-	.722	-	.765	-	.672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767	-	.724	-	.861	-	.687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	.767	-	.755	-	.821	-	.684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	.802	-	.786	-	.804	-	.850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	.701	-	.708	-	.771	-	.802
요인별 고유치		3,329	2,986	3,141	2,859	3,633	3,544	3,128	2,839
요인별 설명 변량		30,267	27,147	28,556	25,989	33,028	32,217	28,432	25,806
Cronbach' $\alpha$		.836	.828	.812	.806	.868	.880	.798	.796

### 4.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각국 청소년들의 성적, 독립·자립 의식, 성역할 태도,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포함된 독립변수 수준 및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의 종속변수 수준에서 성차가 존재하는가?
2. 각국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 및 부정적 자아개념에는 기본 변수군과 가족 배경보다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3.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은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을 높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은 청소년 자녀의 부정적 자아개념을 높이는가?

본 연구의 통계분석 방법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의 여학생들과 남학생들 사이에서 성적, 독립·자립 의식, 성역할 태도,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아버지와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 자아개념인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에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 및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성별, 연령, 성적, 독립·자립 의식, 성역할 태도, 가족배경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스웨덴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오지 않아 제외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국가별 남녀 청소년들의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서의 성차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남녀 청소년들 간에 독립변수인 성적, 독립·자립 의식, 성역할 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및 강압적 양육방식, 종속변수인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하여 평균 차이를 t검정하여 성차를 알

아보았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의 남녀 청소년들 간의 학교성적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독일, 스웨덴의 남녀 청소년들 간에서는 성적에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에서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성적이 더 높았다.

독립·자립 의식의 경우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의 남녀 청소년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일본에서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독립·자립 의식이 더 낮았다. 한국과 일본은 집합주의 문화권으로 상호의존적 자아를 강조하고 미국, 독일, 스웨덴은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독립적인 자아를 강조하였다(Hofstede, 1991; Markus & Kitayama, 1991; Nisbett, 2003; 최상진·김기범, 1999). 집합주의 문화권과 개인주의 문화권 사이에서 강조하는 자아개념은 다르지만 각국 청소년들 간의 독립·자립 의식의 평균은 비슷하였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에서 성역할 태도를 살펴보면,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의 성역할 태도가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였다. 남성은 공적 영역에 한정되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도구적 역할을 담당하며, 여성은 사적 영역에 한정되어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는 표현적 역할을 맡는 성별 분업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다(Parsons, 1955). 이러한 성별 분업의 성역할은 부모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윤진, 1981; 정기선·박수미, 2007).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 및 어머니는 각각 강압적 양육방식보다는 민주적 양육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윤인진 외(2007)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보다는 미국, 독일, 스웨덴에서 부모 중에서 특히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를 민주적으로 양육하였다. 남녀 청소년들 간의 국가별 아버지의 양육방식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은 일본과 미국에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었고,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은 한국과 미국에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각 국가에서 아버지들은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에서 어머니들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을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하였다.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에서는 각 국가에서 여학생들과 남학생들 간에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없었다. 국가별 어머니의 양육방식에서도 어머니들은 청소년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양육하기보다는 민주적으로 양육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남녀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을 살펴보면, 각국의 남녀 청소년들은 부정적 자아개념보다는 긍정적 자아개념이 더 높았다.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 독일의 남녀 청소년들 간에는 긍정적 자아개념 및 부정적 자아개념에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이 더 높았다.

<표 5> 국가별 청소년들에 대한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t 검정<sup>3)</sup>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스웨덴	
		평균 (표준편차)	t값	평균 (표준편차)	t값	평균 (표준편차)	t값	평균 (표준편차)	t값	평균 (표준편차)	t값
성적	여	2,979(1,045)	-.747	3,107(1,149)	1.994*	4,155(1,048)	4.052***	3,457(,634)	-.367	2,364(,611)	1,222
	남	3,018(1,148)		2,893(1,115)		3,953(1,101)		3,481(,809)		2,285(,652)	
	전체	3,000(1,101)		2,991(1,137)		4,039(1,084)		3,471(,790)		2,332(,630)	
독립·자립의식	여	2,218(,639)	-.913	2,453(,718)	2,717**	2,522(,748)	1,872	2,402(,775)	.016	2,426(,583)	-.986
	남	2,245(,624)		2,273(,670)		2,458(,730)		2,401(,830)		2,488(,626)	
	전체	2,233(,631)		2,371(,702)		2,469(,755)		2,428(,818)		2,453(,601)	
성역할 태도	여	3,319(,480)	17,984***	3,139(,509)	5,478***	3,061(,491)	7,736***	3,398(,422)	9,723***	3,536(,369)	6,968***
	남	2,919(,444)		2,881(,481)		2,889(,472)		2,946(,593)		3,216(,489)	
	전체	3,105(,502)		3,021(,513)		2,994(,485)		3,126(,593)		3,399(,452)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	여	2,756(,570)	1,797	2,779(,613)	3,175**	2,948(,888)	-2,341*	3,152(,626)	.992	2,921(,658)	-1,714
	남	2,707(,551)		2,593(,588)		3,041(,837)		3,095(,617)		3,020(,449)	
	전체	2,730(,561)		2,693(,608)		2,974(,866)		3,118(,602)		2,959(,584)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	여	1,542(,524)	-4,019***	1,405(,494)	-1,139	1,570(,648)	-2,166*	1,388(,411)	-.767	1,399(,423)	1,201
	남	1,647(,550)		1,460(,500)		1,638(,702)		1,421(,506)		1,349(,372)	
	전체	1,598(,541)		1,430(,497)		1,592(,661)		1,454(,505)		1,376(,402)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여	3,113(,533)	7,248***	3,234(,479)	6,323***	3,560(,527)	3,622***	3,478(,454)	4,080***	3,214(,504)	2,151*
	남	2,928(,529)		2,932(,524)		3,463(,614)		3,298(,510)		3,110(,433)	
	전체	3,014(,539)		3,096(,522)		3,493(,584)		3,374(,445)		3,168(,476)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	여	1,540(,513)	-.918	1,458(,500)	1,255	1,527(,615)	-1,245	1,475(,560)	1,457	1,364(,400)	.045
	남	1,563(,535)		1,405(,383)		1,564(,659)		1,407(,457)		1,362(,426)	
	전체	1,552(,525)		1,434(,451)		1,529(,613)		1,456(,539)		1,362(,411)	
긍정적 자아개념	여	2,755(,498)	-.037	2,474(,614)	-.770	3,516(,468)	1,335	3,120(,563)	-1,370	3,033(,486)	-.459
	남	2,756(,541)		2,518(,595)		3,486(,499)		3,184(,448)		3,057(,506)	
	전체	2,756(,522)		2,494(,605)		3,527(,476)		3,152(,427)		3,044(,494)	
부정적 자아개념	여	2,091(,631)	-1,869	2,036(,700)	-.632	1,736(,690)	.499	1,567(,533)	-.875	2,112(,450)	2,682**
	남	2,147(,622)		2,076(,637)		1,720(,720)		1,614(,604)		1,980(,491)	
	전체	2,121(,627)		2,054(,671)		1,714(,709)		1,573(,580)		2,056(,471)	

\*p<.05, \*\*p<.01, \*\*\*p<.001

3) 성적은 상=5, 중상=4, 중=3, 중하=2, 하=1로 최소치가 1이고 최대치가 5이다. 단, 스웨덴 청소년들의 성적은 상=3, 중=2, 하=1로 최소치가 1이고 최대치가 3이다. 독립·자립 의식, 성역할 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아버지와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점이며 문항의 최소치가 1이고 최대치가 4이다.

## 2. 국가별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및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 간의 관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 및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각국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 및 부정적 자아개념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은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이 낮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은 각국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정적 자아개념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방식을 취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반면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은 각국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 및 부정적 자아개념과 상이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국 및 미국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면에 독일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아버지 및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일본과 스웨덴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과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본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과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스웨덴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6> 국가별 청소년들의 자아개념과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 간의 상관관계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
한 국	긍정적 자아개념	1.000					
	부정적 자아개념	-.288**	1.000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	.225**	-.276**	1.000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	-.136**	.190**	-.328**	1.000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280**	-.248**	.662**	-.253**	1.000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	-.164**	.204**	-.227**	.673**	-.316**	1.000
일 본	긍정적 자아개념	1.000					
	부정적 자아개념	-.341**	1.000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	.157**	-.151**	1.000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	-.044	.071	-.311**	1.000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247**	-.213**	.545**	-.092	1.000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	-.042	.100*	-.132**	.576**	-.216**	1.000
미 국	긍정적 자아개념	1.000					
	부정적 자아개념	-.421**	1.000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	.213**	-.259**	1.000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	-.217**	.402**	-.265**	1.000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306**	-.324**	.267**	-.247**	1.000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	-.248**	.421**	-.129**	.534**	-.344**	1.000
독 일	긍정적 자아개념	1.000					
	부정적 자아개념	-.261**	1.000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	.215**	-.296**	1.000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	.144*	.146*	-.199**	1.000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254**	-.264**	.545**	-.108	1.000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	.144*	.301**	-.071	.494**	-.247**	1.000
스 웨 덴	긍정적 자아개념	1.000					
	부정적 자아개념	-.549**	1.000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	.124*	-.149**	1.000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	-.093	.110*	-.339**	1.000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174**	-.153**	.601**	-.253**	1.000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	-.092	.079	-.273**	.635**	-.392**	1.000

\*p<.05, \*\*p<.01

### 3. 한국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인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해 모형1에서는 성별, 연령, 성적, 독립·자립 의식, 성역할 태도로 구성된 기본 변수군과 아버지 학력 및 어머니 학력으로 구성된 가족 배경을 포함하였다.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모형2에서는 기본 변수군과 가족배경이 통제된 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과 강압적 양육방식으로 구성된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을 추가 하였다.

한국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미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형1에서는 성적, 어머니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모형2에서는 성적, 어머니 학력,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및 강압적 양육방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1의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일수록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모형2에서는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추가되자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성적 및 어머니 학력의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과 강압적 양육방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이 미친 영향력이 가장 컸다. 그래서 모형2에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수록,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방식을 취할수록, 어머니가 강압적 양육방식을 취하지 않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회귀 모형1의 결정계수(수정된  $R^2$ )는 .024로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대해 2.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회귀 모형2의 결정계수(수정된  $R^2$ )는 .107이었고,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설명력은 10.7%이었다.

한국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는 모형1의 경우 성적, 독립·자립 의식, 성역할 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고, 모형2의 경우 성적, 독립·자립 의식, 성역할 태도,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1에서는 성적이 낮을수록, 독립·자립 의식이 낮을수록,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추가된 모형2에서는 성적과 독립·자립 의식 및 성역할 태도가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모형2의 경우 성적이 낮을수록, 독립·자립 의식이 낮을

수록, 성별 분업의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아버지가 민주적 양육방식을 취하지 않을수록, 어머니가 강압적 양육방식을 취할수록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회귀 모형1의 결정계수(수정된  $R^2$ )는 .062로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관하여 6.2%의 설명력을 갖는다. 회귀 모형2의 결정계수(수정된  $R^2$ )는 .136이며,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해 13.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한국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에 끼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고, 성적이 낮을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아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Rosenberg & Pearlin, 1978; Demo & Savin-Williams, 1983; Ross & Broh, 2000). 그리고 가족배경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상일수록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은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청소년 자녀의 자아개념이 높았던 손진희·김안국(2005)과 이선애(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에는 성적과 어머니 학력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과 강압적 양육방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는 성적과 독립·자립의식 및 성역할 태도의 영향력을 줄이며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 및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김은정, 2006; 홍세희 외, 2006).

<표 7> 한국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상수	2.529(.131)***	2.180(.161)***	2.978(.153)***	3.347(.189)***
기본 변수군				
성별(여학생=1)	-.025(.029)	-.037(.028)	.027(.034)	.023(.033)
연령	-.006(.026)	-.017(.025)	-.051(.030)	-.046(.029)
성적	.066(.012)***	.054(.012)***	-.080(.014)***	-.062(.014)***
독립·자립 의식	-.029(.022)	-.004(.021)	.074(.025)**	.053(.025)*
성역할 태도	.039(.030)	-.017(.029)	-.208(.035)***	-.152(.034)***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가족배경				
아버지 학력(대졸이상=1)	-.026(.032)	-.033(.031)	-.069(.037)	-.054(.036)
어머니 학력(대졸이상=1)	.097(.038)*	.088(.037)*	-.010(.045)	-.008(.043)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		.019(.032)		-.203(.037)***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		-.038(.034)		.021(.040)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227(.034)***		-.077(.040)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		-.090(.035)**		.122(.041)**
$R^2$	.029	.113	.066	.142
수정된 $R^2$	.024	.107	.062	.136
F값	6.556***	17.492***	15.591***	22.778***

주: ( )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 $p < .05$ , \*\* $p < .01$ , \*\*\* $p < .001$

#### 4. 일본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일본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에 영향을 끼친 독립변수들을 각각 살펴보면, 모형1에서 성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모형2에서는 성적과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의 경우 모형1에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과 강압적 양육방식 변수로 구성된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을 추가한 모형2에서는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성적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모형2에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방식을 취할수록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회귀 모형1에서 결정계수(수정된  $R^2$ )는 .025로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설명력은 2.5%이었다. 회귀 모형2의 결정계수(수정된  $R^2$ )는 .068이었고,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설명력이 6.8%이었다.

일본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해서는 모형1의 경우 성적이 낮을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추가된 모형2에서는 성적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는데 성적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방식을 취하지 않을수록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부정적 자아개념에 관한 회귀 모형1의 결정계수(수정된  $R^2$ )는 .031로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설명력이 3.1%이었다.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추가된 회귀 모형2의 결정계수(수정된  $R^2$ )는 .050로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설명력이 5.0%이었다.

일본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에는 성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추가되자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변수의 영향으로 인해 성적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학교 성적이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의 반영인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이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어머니가 주된 청소년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버지의 양육방식보다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강영배, 2004; 김현철 외, 2006).

<표 8> 일본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상수	2.484(.262)***	1.588(.380)***	2.589(.294)***	3.378(.431)***
기본 변수군				
성별(여학생=1)	-.037(.064)	-.126(.066)	-.017(.071)	.073(.075)
연령	-.065(.039)	-.069(.039)	-.015(.044)	-.004(.044)
성적	.089(.028)***	.074(.027)**	-.122(.031)***	-.106(.031)***
독립·자립 의식	.040(.046)	.046(.045)	-.007(.051)	-.023(.051)
성역할 태도	-.069(.065)	-.041(.065)	-.031(.073)	-.062(.073)
가족배경				
아버지 학력(대졸이상=1)	.069(.074)	.027(.073)	.038(.083)	.066(.083)
어머니 학력(대졸이상=1)	-.008(.071)	-.017(.069)	-.073(.079)	-.056(.079)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		.009(.062)		-.037(.070)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		.005(.080)		.044(.091)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288(.078)***		-.228(.088)**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		.002(.091)		-.047(.104)
$R^2$	.043	.095	.049	.077
수정된 $R^2$	.025	.068	.031	.050
F값	2.418*	3.516***	2.775**	2.822***

주: ( )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 $p < .05$ , \*\* $p < .01$ , \*\*\* $p < .001$

## 5. 미국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미국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에는 모형1에서 성적과 성역할 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모형2에서는 성적, 성역할 태도,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및 강압적 양육방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1에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추가된 모형2에서는 성적과 성역할 태도의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모형2에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아버지가 민주적 양육방식을 취할수록,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방식을 취할수록, 어머니가 강압적 양육방식을 취하지 않을수록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회귀 모형1의 결정계수(수정된  $R^2$ )가 .084이었고,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대하여 8.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 변수가 추가된 회귀 모형2의 결정계수(수정된  $R^2$ )는 .189로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관해 18.9%의 설명력을 보였다.

미국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는 모형1의 경우 성별, 성적, 독립·자립 의식, 성역할 태도, 어머니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모형2에서는 성별, 성적, 성역할 태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 및 강압적 양육방식,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및 강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1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부정적 자아개념이 더 높았고, 성적이 낮을수록, 독립·자립 의식이 낮을수록,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일수록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과 강압적 양육방식으로 구성된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추가된 모형2에서는 성별, 성적, 성역할 태도, 어머니의 학력이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끼친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독립·자립 의식의 영향력은 없어졌다. 모형2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부정적 자아개념이 더 높았으며, 성적이 낮을수록,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취할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일수록, 아버지와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방식을 취하지 않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가 강압적 양육방식을 취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회귀 모형1의 결정계수(수정된  $R^2$ )는 .123이었고,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하여 12.3%의 설명력을 가졌다. 회귀 모형2의 결정계수(수정된  $R^2$ )는 .311이었고, 청소년들의 부정

적 자아개념에 대하여 31.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미국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보다는 부정적 자아개념에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리고 가족배경에서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이상으로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손진희·김안국, 2005; 김은정, 2006; 이선애, 2007).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모형1의 경우 독립·자립 의식이 낮을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미국은 특히 개인주의 사회로 개인의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립적인 자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집합주의 사회보다 독립·자립 의식에 더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과 연관시켜 해석할 수 있다(Hofstede, 1991; Markus & Kitayama, 1991; Nisbett, 2003). 그러나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모형2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추가되자 독립·자립 의식의 영향력이 없어져 미국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는 독립·자립 의식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였다(Coleman, 1988; Hay & Ashman, 2003).

<표 9> 미국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상수	2.573(.128)***	2.026(.168)***	2.979(.183)***	2.802(.226)***
기본 변수군				
성별(여학생=1)	-.018(.030)	-.022(.028)	.119(.043)**	.116(.038)**
연령	.007(.023)	.002(.021)	-.012(.032)	-.011(.029)
성적	.096(.014)***	.066(.013)***	-.161(.020)***	-.109(.018)***
독립·자립 의식	-.004(.020)	.024(.019)	.088(.028)**	.039(.025)
성역할 태도	.190(.031)***	.158(.029)***	-.285(.044)***	-.214(.039)***
가족배경				
아버지 학력(대졸이상=1)	-.018(.033)	-.052(.031)	.036(.046)	.099(.042)*
어머니 학력(대졸이상=1)	.011(.032)	.012(.030)	-.091(.046)*	-.084(.041)*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		.070(.018)***		-.116(.024)***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		-.044(.026)		.156(.036)***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192(.029)***		-.136(.038)***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		-.057(.029)*		.274(.038)***
$R^2$	.090	.198	.130	.318
수정된 $R^2$	.084	.189	.123	.311
F값	14.042***	22.070***	21.009***	41.772***

주: ( )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p<.05, \*\*p<.01, \*\*\*p<.001

## 6. 독일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독일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에는 모형1의 경우 성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모형2에서는 성적,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및 강압적 양육방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모형1의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추가된 모형2에서는 성적의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모형2에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방식을 취할수록, 어머니가 강압적 양육방식을 취할수록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회귀 모형1의 결정계수(수정된  $R^2$ )는 .069이었고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대해 6.9%의 설명력을 가졌다. 회귀 모형2의 결정계수(수정된  $R^2$ )는 .191이었고,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대해 19.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독일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는 모형1의 경우 성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 2에서는 성적,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모형1에서는 성적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을 추가한 모형2에서는 성적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강압적 양육방식을 취할수록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았다. 모형2에서는 성적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끼친 영향력이 가장 컸다. 회귀 모형1의 결정계수(수정된  $R^2$ )는 .059로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관해 5.9%의 설명력을 보였다. 회귀 모형2의 결정계수(수정된  $R^2$ )는 .141로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해 14.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 중에서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은 독일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은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주요한 청소년들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김현철 외, 2006; 정기섭, 2007). 또한 앞의 t검정을 살펴보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자녀를 민주적으로 양육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주된 양육을 담당하고 있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더 친밀하며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된다. 독일의 경우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은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 및 부정적 자아개념과 유의미

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은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 및 부정적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 방식 문항에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시정하도록 처벌하는 문항이 있어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자아개념도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표 10> 독일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상수	2.855(.245)***	1.463(.345)***	2.331(.328)***	2.237(.485)***
기본 변수군				
성별(여학생=1)	.017(.071)	-.029(.068)	-.010(.095)	-.048(.095)
연령	.012(.041)	-.004(.039)	.071(.055)	.070(.054)
성적	.162(.040)***	.137(.037)***	-.161(.053)**	-.141(.053)**
독립·자립 의식	.009(.038)	-.009(.037)	.030(.051)	.025(.051)
성역할 태도	-.094(.060)	-.070(.058)	-.152(.080)	-.062(.081)
가족배경				
아버지 학력(대졸이상=1)	-.095(.098)	-.054(.092)	-.056(.131)	-.035(.129)
어머니 학력(대졸이상=1)	.013(.107)	.091(.102)	.272(.143)	.183(.143)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방식		.118(.071)		-.105(.099)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		.071(.070)		.002(.099)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226(.088)*		-.094(.124)
어머니의 강압적 양육방식		.157(.068)*		.307(.096)**
$R^2$	.103	.239	.094	.192
수정된 $R^2$	.069	.191	.059	.141
F값	3.017**	4.937***	2.709*	3.738***

주: ( )는 비표준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 $p < .05$ , \*\* $p < .01$ , \*\*\* $p < .001$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집합주의 문화권과 개인주의 문화권 국가별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인 긍정적 자아개념 및 부정적 자아개념에 독립변수들인 기본 변수군과 가족배경 및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끼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기본 변수군에는 개인적 차원의 성별, 연령, 성적 및 사회문화적 영향이 반영된 독립·자립 의식과 성역할 태도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가족배경에는 아버지 및 어머니의 학력이 포함되었고,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방식 및 강압적 양육방식이 포함되었다.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라고 해석하였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에서 남녀 청소년들 간의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서의 평균 차이를 통해 성차를 살펴보았다. 각국의 남녀 청소년들은 부정적 자아개념보다 긍정적 자아개념이 더 높았다. 국가별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의 독립·자립 의식의 평균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은 집합주의 문화권이며, 집단과의 화합을 강조하는 상호의존적 자아를 강조한다. 이에 비하여 미국, 독일, 스웨덴은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개인의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독립적인 자아를 강조한다(Hofstede, 1991; Markus & Kitayama, 1991; Nisbett, 2003; 최상진·김기범, 1999; 한규석, 2002). 이렇게 집합주의 문화권과 개인주의 문화권에 따라 강조하는 자아개념이 다르지만, 각국 남녀 청소년들의 독립·자립 의식의 평균은 비슷하였다. 또한 각국의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더 개방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었다. 여성은 사적 영역에 한정되고, 남성은 공적 영역에 한정되는 성별 분업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부모의 사회화 기제를 통해 자녀에게 학습되는 경향이 있었다(Parsons, 1955; 윤진, 1981; 정기선·박수미, 2007).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을 살펴보면, 각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강압적 양육방식보다는 민주적 양육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스웨덴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 및 부정적 자아개념에는 기본 변수군과 가족배경 및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해 기본 변수군 및 가족배경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을 통제한 다음에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을 추가한 경우의 영향력은 국가별로 상이하였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기본 변수군에 포함된 성별, 독립·자립 의식, 성역할 태도가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 및 부정적 자아개념에 끼친 영향력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달리 연령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Demo, 1992; 홍세희 외, 2006).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 독일의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성적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았고, 성적이 낮을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성적과 자아개념의 관련성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Rosenberg & Pearlin, 1978; Demo & Savin-Williams, 1983; Ross & Broh, 2000). 또한 가족배경 중에서 어머니의 학력은 한국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미국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아버지의 학력은 미국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고, 부정적 자아개념이 낮은 경향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미국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한 아버지 학력의 영향력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손진희·김안국, 2005; 이선애, 2007).

한국, 일본, 미국, 독일에서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 및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해 기본 변수군 및 가족배경이 통제된 후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끼친 영향력은 다음과 같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아버지의 양육방식은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한국, 일본, 독일에서보다 미국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 및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하여 기본 변수군과 가족배경의 영향력을 줄이며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끼친 영향력이 가장 컸다. 국가별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미친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방식을 취할수록, 강압적 양육방식을 취하지 않을수록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민주적 양육방식을 취하지 않을수록, 강압적 양육방식을 취할수록 청소년의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와 친밀함을 형성하게 하는 민주적 양육방식 및 강압적이지 않은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중요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아버지의 양육방식보다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에 더 중요하였다. 어머니가 주된 자녀 양육을 맡고 있어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개념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Coleman, 1988; Hay & Ashman, 2003; 김승권 외, 2005; 손진희·김안국, 2005; 김은정, 2006; 김현철 외, 2006; 홍세희 외, 2006; 이선애, 2007).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집합주의 문화권과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분석대상을 추출하였다. 향후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관한 국가별 비교 연구에서는 정교한 비교분석이 되도록 학교 소재지나 거주지를 분류기준으로 하여 표본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은 사회화의 기제로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 이외의 또래관계 및 학교, 거주지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연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영배(2004). 현대 일본 청소년 정책에 관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2호, pp. 163-183.
- 김은정(2006). 초기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정 내 사회자본의 역할과 특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18집 3호, pp. 33-61.
- 김의철·박영신·권용은(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1권 1집 pp. 109-142.
- 김승권·전광희·김민자·이연주·김유경·서문희·조애저(2005). 인구전환기의 한국 사회 가치관 및 가족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철·김은정·손승영·이기재·박현주(2006). 청소년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한국·일본·미국·독일·스웨덴의 가족내 자녀사회화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손진희·김안국(2005). 가정환경, 자아개념, 자기학습량과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 375-396.
- 송인섭(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학지사.
- 안호용·김홍주(2000). 한국 가족 변화의 사회적 의미. *한국사회*, 제3집, pp. 89-132.
- 오만석·동성달·박찬구·추병완(2001). 한국·미국·일본 국민의 윤리의식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제11권 제1호, pp. 29-78.
- 윤인진·임창규·정재영(2007). 자녀 양육방식에 관한 직업계층 및 국가별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pp. 167-192.
- 윤진(1981). 남녀차이에 대한 심리학적 한 고찰: 성역할 사회화과정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15집, pp. 21-35.
- 윤철경(2003). 주요 외국의 청소년 정책 동향. *청소년문화포럼*, 제7권, pp. 29-49.
- 이동원·박옥희(2000). *사회심리학*. 학지사.
- 이선애(2007). 가족구조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청소년 자아 및 심리적 변인. *한국가족복지학*, 제12권 1호, pp. 83-103.
- 이종승·남덕진(2002). 자아개념의 안정성에 관한 종단적 연구. *교육심리연구*, 제16권 2호, pp. 133-151.

- 이효재(1996). 한국 가부장제와 여성. *여성과 사회*, 제7집, pp. 160-176.
- 정기섭·박수미(2007). 세대간 차별의식의 사회화. *가족과 문화*, 제19집 2호, pp. 121-137.
- 정기섭(2007). 독일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 운영 현황. *비교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pp. 111-131.
- 정명숙·김혜리(2005). 삶에 대한 가치관과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각에서 세대 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8권 1집, pp. 115-135.
- 정옥분·정순화·김경은·박연정(2007). 가족가치관과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2권 2호, pp. 215-249.
- 최상진·김기범(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2집, pp. 275-292.
- 최재석(199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현음사.
- 최태진(2004).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신건강: 부모애착과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상호관계와 그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15권 제2호, pp. 117-152.
- 한규석(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 홍세희·박언하·홍혜영(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효과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17권 제2호, pp. 241-263.
- Coleman, James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 95-120.
- Cooley, Charles Horton.(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 C. Scribner's sons.
- Demo, David H., & Savin-Williams, Ritch C.(1983). Early adolescent self-esteem as a function of social class: Rosenberg and Pearlin revisit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8 No. 4, pp. 763-774.
- Demo, David H.(1992). The Self-Concept Over Time: Research Issues and Direc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8, pp. 303-326.
- Gecas, Viktor.(1982). The self-concept.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8, pp. 1-33.
- Hay, Ian, & Ashman, Adrian F.(2003).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emotional

- stability and general self-concept: The interplay of parents, peers, and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Vol. 50 No. 1, pp. 77-91.
- Hewitt, John P. 2000(2001). 자아와 사회. 윤인진 외 공역. 학지사.
- Hofstede, Geert. 1991(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차재호 · 나은영 공역. 학지사.
- Markus, Hazel Rose, & Kitayama, Shinobu.(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98 No. 2, pp. 224-253.
- Mead, George H.(1934). *Mind, self, and socie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isbett, Richard E. 2003 (2004). 생각의 지도. 최인철 역. 김영사.
- Parsons, Talcott. 1955(1995). 파슨스, 미국가족: 인성 및 사회구조와의 관계. 박숙자 역, 가족과 성의 사회학: 고전사회학에서 포스트모던 가족론까지(pp. 151-180). 사회비평사.
- Ridgeway, Cecilia L., & Smith-Lovin, Lynn.(1999). The gender system and interac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5, pp. 191-216.
- Rosenberg, Morris, & Pearlman, Leonard I.(1978). Social clas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and adul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4 No. 1, pp. 53-77.
- Rosenberg, Morris.(1989). Self-concept research: A historical overview. *Social Forces*, Vol. 68 No. 1, pp. 34-44.
- Ross, Catherine E., & Broh, Beckett A.(2000). The roles of self-esteem and the sense of personal control in the academic achievement process. *Sociology of Education*, Vol. 73 No. 4, pp. 270-284.
- Stryker, Sheldon. 1981(1994).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주제와 다양한 논의들. 손장권 · 이성식 · 전신현 편저, 미드의 사회심리학(pp. 73-109). 일신사.
- Turner, Jonathan H.(2003).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Thomson Wadsworth.

## ABSTRACT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n the Self-Concepts of Adolescents in South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Sweden

Lee, Eun-A\*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the parenting styles of fathers and mothers affect the self-concepts of their children. Data from the 2006 Survey on Youth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 performed in South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Sweden by the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were utilized.

According to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the positive self-concepts of adolescents in these 5 countries were higher than their negative self-concepts. The democratic parenting styles of fathers and mothers affected positive and negative self-concepts of their children t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gree. The parenting styles of mothers were more important than those of fathers in the formation of the self-concepts of their children.

**Key Words** : democratic and oppressive parenting styles of fathers and mothers,  
socialization, adolescence's self-concept

투고일 : 9월 16일, 심사일 : 10월 22일, 심사완료일 : 11월 7일

---

\* Korea University

